

순자의 ‘군(群)’ 개념을 통해 본 욕망과 본성

- 인간과 동물의 구분을 중심으로 -

장 원 태
서울대

1. 서론
- 2.1 인간과 군(群)
- 2.2 욕망과 감정
- 2.3 오직 인간의 본성(性)
3. 결론: ‘군’, 감정과 욕망,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논문 요약】

‘군’과 관련해 순자의 사상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계이다. 인간에게 ‘군’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게끔 해주는 것이기에 앞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이 점이 이어지는 논의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순자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군’의 형성과 유지라는 점에서 평가한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 자체가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지만 인간의 욕망과 감정이 ‘군’ 안에서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주된 내용으로 갖고 있는 본성에 대해 악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둘째는 ‘군’ 안에 구현되는 질서에 대해 논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순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관습과 사상들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진행하고 예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본성에 대한 논의는 처음에는 인간이 갖는 결함을 지적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의 질서를 구현할 장소로 존재한다. 즉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군’이 순자가 생각하는 예를 원래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군’이 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가능성을 갖는만큼, 인간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본성 역시 이러한 적극적인 가능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어: 순자, 본성, 군, 사회, 욕망

1. 서론

오늘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간이 가진 뛰어난 지적 능력을 이유로 들 것이다. 인간보다 우월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있는 이상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점은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순자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인간이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각 능력[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지각 능력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제」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인간의 지각 능력이 아니었다. 순자로서는, 인간의 지각 능력이 타고난 능력인 이상 본성에 속하는 것이고, 본성에 속하는 것인 이상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자라도 스승과 법도의 인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둑이 될 뿐이므로²⁾, 올바르게 계발되지 않은 지각 능력이란 공동체나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로 순자가 제시한 것은 인간이 공동체 또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순자는 공동체 또는 사회(群)를 구성할 수 없는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의로움(義)에 근거해 공동체 또는 사회를 구성하여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다른 존재들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지만 잘 조직된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다른 모든 존재를 넘어설 수 있다. 반대로 잘 조직된 공동체나 사회를 건설하지 못할 경우 인간은 고립된 개인으로 남게 되어 결국 인간은 지속적인 위협에 빠지게 된다.³⁾

1) 『순자』에서 知는 동물도 갖는 것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고도의 지적 능력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순자는 「禮論」에서 “凡生乎天地之間者，有血氣之屬必有知，有知之屬莫不愛其類。”라고 말하여 知를 좋아함과 싫어함 즉 好惡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했고, 「天論」에서는 “楚王後車千乘，非知也；君子啜菽飲水，非愚也；是節然也。若夫心意脩，德行厚，知慮明，生於今而志乎古，則是其在我者也。”라고 말하여 인간이 갖는 지혜로움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보다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졸고(2005)의 III.3.1.1과 III.3.1.2를 참고.

2) 『儒效』 故人無師無法，而知則必爲盜，勇則必爲賊，云能則必爲亂，察則必爲怪，辯則必爲誕.

이런 점에서 그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군’이 없을 수 없다[人之生不能無群]”⁴⁾이라고 했던 주장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주요 관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순자는 여러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동체나 사회 즉 ‘군에 속해 있는 인간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곤 했다. 예컨대 순자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논할 때, 인간의 욕망을 무제약적으로 추구할 때 타인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군주의 역할이나 어진 군자의 역할을 설명할 때에는 이들이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순자는 인간이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상 인간이 어떤 공동체나 사회를 형성하거나 이에 속해 있는 일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순자의 본성론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공동체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이란 인간의 타고난 본성(性)에 속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 즉 인위(僞)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군’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구성한 사회나 국가를 의미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순자』에 나오는 ‘群’이라는 글자의 용례를 살펴 보면, 순자는 ‘군’이라는 용어를 이와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던 사례들과는 달리, 「권학」에서 동물의 ‘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유좌」에서는 소인들의 ‘군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어 번역자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 『순자』에 나오는 ‘群’이라는 글자를 때로는 공동체나 사회의 의미로 해석하고, 때로는 단순한 무리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곤 한다.⁵⁾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3) 「王制」 故人生不能無群，群而無分則爭，爭則亂，亂則離，離則弱，弱則不能勝物。

4) 이 문장에 나오는 “生”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대어 번역은 조금씩 다르다. 김학주는 “사람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번역했고(김학주, p.271), Knoblock은 본문의 ‘生’을 ‘性’으로 고쳐 읽어 “It is of the inborn nature of human beings that it is impossible for them not to form societies.”라고 번역했고(Knoblock, vol.2, p.123), Hutton은 “In order for people to live, they cannot be without community.”라고 번역했고(Hutton, p.85), 張覺은 “人生活着不能無群”(張覺, 9.20)이라고 번역했다. 본고에서는 원문을 고쳐 읽는 Knoblock의 해석은 배제하고 원문 그대로 번역한 김학주와 張覺의 번역을 참고했다.

5) 예컨대 「有坐」편의 “居處足以聚徒成群 … 小人成群，斯足憂矣.”이라는 문장에 대해

토대로 순자가 동일한 글자를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용어상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거나 현대어 번역자들이 잘못 번역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애초에 '群'이라는 글자는 같은 종류인 존재들이 군집해 있는 상태부터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 공동체가 모여 구성하는 사회나 국가와 같은 의미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한다.⁶⁾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자면 순자는, 의로움을 통해 구성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구분하는 것처럼, 폭넓은 의미를 갖는 '군' 개념에 개념적 한정을 가해 여러 층위의 '군'을 구분하여 논했다고 보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비록 순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층위의 '군'을 중심으로 순자의 주요 이론을 검토한 연구성과는 아직 없지만⁷⁾, 필자는 순자가 나눈 '군'의 여러 층위를 살펴보면 순자 철학의 주요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자가 제시한 여러 '군' 각각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 인간의 삶의 최소 요건,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논하는 대목 모두에 걸쳐 있다. 따라서 필자는 순자가 말하는 여러 '군'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인간

Hutton은 “his dwelling could gather followers to the point of forming crowds. ... When petty men form crowds, that is indeed cause for worry.”로 Knoblock은 “Thus, in his private life he had sufficient means to gather about him followers who operated effectively as a group. ... When petty men congregate and work effectively as a group, this is cause enough for sorrow.”(vol.3 p.245)이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각주 3에서 보았듯이, 이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 “群”을 “community”와 “society”로 번역했다.

6) 『漢語大辭典』 “群” 항목 참고.

7) 비록 ‘군’ 개념에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사회성에 주목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 김형진의 연구성과로부터 필자가 큰 자극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김형진은 순자의 문제의식은 도덕/규범을 지니지 않은 인간이 도덕/규범을 도입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규범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삶의 방식을 지닌 인간이 유가적인 예법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김형진, pp.264-270) 물론 필자는 이러한 양자택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순자가 그가 양자택일로 바라본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해석을 따를 경우, 인간의 본성에 사회성 내지는 윤리성을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현실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습속에 몰들기 때문에 그릇된 규범이나 이념에 대한 비판이 순자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의 감정과 욕망, 인간 집단에 이상적인 규칙인 예 등 순자의 주요 주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 전개되는지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는 본고에서 순자가 인간의 감정과 욕망과 관련해 선악을 따지거나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는 대목에서 ‘군’의 여러 층위를 구분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본성과 인위의 결합을 논할 때 역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군’ 안에서의 삶, 즉 공동체나 사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순자가 말하는 본성과 인위의 결합에 대해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미리 지적해 두자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群’이라는 글자가 다양한 의미에 걸쳐 있고 이로 인해 동일한 번역자조차 다양한 번역어를 취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단일한 번역어를 취하지 않고 그냥 ‘군’이라고 칭하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2.1 인간과 군(群)

순자는 『순자』 전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

- (1)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다.
- (2)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추구하게 되면 서로를 해치게 되고 세상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 (3)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예의를 받아들이고 실천해야만 한다.

이런 주장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외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타인들 역시 이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냥 혼자 거주하며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할 뿐이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로움을 누리고 있다. 이 사람은 격리된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 그가 속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가 없으므로 사회나 공동체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사람을 두고 선악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가

정에 대해 순자는 어떤 대답을 할까?

순자는 이런 질문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이렇게 격리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왕제(王制)」의 주장처럼 인간이 소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말처럼 빠르지도 않은 이상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리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인간이 '군'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앞에서 가정한 고립된 인간이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존재이므로 논의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순자가 인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어떤 '군' 안의 개인으로서 살면서 일으키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군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일으키는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무리 안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 인간이 살고 있는 무리의 결속을 해체시켜, 인간들을 '리(離)'의 상태, 즉 해체된 상태로 만들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요건인 '군'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일 것이다.⁸⁾

그렇다고 해도 순자에게 '군'이라는 용어가 적극적인 도덕적 함축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순자에게 '군' 자체는 어떤 윤리적 질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왕제」에서 순자는 동물은 '군'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다른 곳에서 순자는 동물 역시 '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권학」에서는 동물 역시 '군'을 이룬다고 말했다⁹⁾ 「예론」에서는 동물들 역시 동족에 대해 친밀한 감정을 가진다고 말하여, 비록 '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동물도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순자는 악인들도 '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유좌」편에서는 소정묘(少正卯)가 “무리를 모아 '군'을 형성했다[聚徒成群]”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소인이 '군'을 형성했다[小人成群]”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소인(小人)들이 '군'을 형성한 이상 그들 나름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군'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보건대 동물 뿐 아니라 악인 혹은 소인도 “'군'을 형성하는[成群]”하는 이상, '군'을 이루었다

8) 「王制」 故人生不能無群，群而無分則爭，爭則亂，亂則離，離則弱，弱則不能勝物。

9) 「勸學」 草木疇生，禽獸群居，物各從其類也。

고 모두 윤리적 질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순자가 군주와 어진 군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하는 대목에서 거꾸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군주란 사람들로 하여금 ‘군’을 잘 이루게 하는 사람이다.¹⁰⁾ ‘군’을 이루는 도리가 적절하면 만물은 모두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얻게 되고, 여섯 가축은 모두 제대로 자라나고, 못 생명들은 자신의 천수를 누리게 된다. 그런 까닭에 기르고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 때에 맞으면 여섯 가축이 잘 자라나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때에 맞으면 초목이 자라나고 정사와 명령이 때에 맞으면, 백성이 하나가 되고 유능한 사람들과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북종하게 된다.¹¹⁾ (『왕제』)

백성의 힘은 [어진 군자의 덕을] 기다린 뒤에야 효과가 나타나고, 백성의 ‘군’은 [어진 군자의 덕을] 기다린 뒤에야 조화롭게 되고, 백성의 재화는 [어진 군자의 덕을] 기다린 뒤에야 모이게 되고, 백성의 형세는 [어진 군자의 덕을] 기다린 뒤에야 안정된다.¹²⁾ (『부국』)

순자는 군주란 ‘군’을 잘 형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군주가 ‘군’을 형성하는 도리(道)가 합당하면 인간은 조화롭고 인륜을 잘 구현하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외의 존재들까지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동물의 ‘군’보다 우월하며 인간이 형성할 수 있는 ‘군’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군’이란 ‘군’이 조화로와 하나된(和一) 상태에 있을 때, 즉 「군도」와 「부국」에 나온 바대로 군주가 예의를 구현한 군 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형성하는 ‘군’은 예의라는 올바른 질서를 가질 수도 있지만, 잘못된 통치 질서나 규범을 가진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자면, 비록 순자 자신은 ‘군’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내린 적이 없지만, 순자에게 ‘군’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종에 속한 개체 혹은 동일한 종 내부에서 동일한 성향을

10) 이 부분의 번역은 『荀子集解』에 수록된 楊倞의 注(善能使人爲羣也)를 참고했다.

11) 「王制」 君者善羣也. 羣道當, 則萬物皆得其宜, 六畜皆得其長, 羣生皆得其命. 故養長時, 則六畜育, 殺生時, 則草木殖, 政令時, 則百姓一, 賢良服.

12) 「富國」 百姓之力, 待之而後功. 百姓之群, 待之而後和. 百姓之財, 待之而後聚. 百姓之執, 待之而後安.

갖는 개체들의 집단이며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존재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이리저리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군'을 구성하는 개체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순자의 표현을 빌자면 아버지와 아들(父子)과 같은 생물학적인 관계는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함(父子之親)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순자』「비상」)

이제 이를 토대로 인간 개체로부터 출발해 예의(禮義)를 통해 조화롭고 하나된 상태(和一)에 도달한 '군'에 이르기까지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별 인간 즉 '군'에 속하지 않은 인간
- (2) 순자가 보기에 질서를 갖지 못한 '군', 아마도 동물의 '군'
- (3) 윤리적 질서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의(禮義)가 구현되어 있지는 않은 '군'
- (4) 예의(禮義)가 구현된 '군'

이 중 (1)과 (4)는 현실로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 자체로 순자 논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어떠한 '군'에도 속하지 않은 (1)의 인간은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존재하기 힘들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런 인간의 선악(善惡)이나 치란(治亂)을 논할 필요가 거의 없으므로 '군' 안의 인간을 논하는 순자의 논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에게 이러한 인간을 가정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1)의 인간 즉 완전히 고립된 인간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거꾸로 인간이 '군'을 형성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의가 구현된 '군'인 (4)는 과거의 성인이 다스리던 시대에만 실재했을 뿐 순자가 생존하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은 '군'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은 목표 내지는 전범으로서 존재하며 (1)의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 목표를 제시해 준다.

반면 (2)와 (3)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양자에 대해서는 섬세한 구분이 필요하다. 순자가 악을 저지르는 인간을 두고 금수같다고 말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간이 형성하는 '군'이 타락할 경우 (3)에서 (2)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할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예의가 완벽히 구현되지 못한 인간의 '군'이란 (2)와 다르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순자의 입장에서는 (2)

와 (3)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인간의 ‘군’과 동물의 ‘군’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대목들은 수사적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를 두고 ‘동물의 왕국’이라고 부를지라도 이런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거나 유머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과 동물이 ‘군’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순자가 동물에게도 “아버지와 아들(父子)”는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친함(父子之親)”이 없고, 암컷과 수컷은 있지만 “남녀의 구별(男女之別)”이 없다고 말하는 데(『순자』「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순자가 보기에 동물에게도 자연적인 관계는 존재하지만 인륜에 상응하는 것은 없다. 게다가 당연히도 순자는 어디에서도 동물들이 인간과 대적할만한 혹은 인간에게 비교할만한 질서를 가진 ‘군’을 형성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순자는 동물이 그들의 ‘군’을 형성할 수 있을지라도 동물은 이를 넘어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 실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심지어 순자는 「영욕」편에서 추악한 인간들에 대해 그들을 짐승으로 분류하고 싶지만 그들의 외양과 호오(好惡)가 다른 인간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¹³⁾ 따라서 (2)의 단계는 인간에 대한 경고 또는 반면교사의 의미로 설정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현실의 인간이 형성하는 ‘군’은, 동물의 ‘군’과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성인의 도리에 따르는 상태도 아닌 상태인 (3)에 속할 것이다. 현실의 인간이 형성하는 ‘군’이 동물의 ‘군’과 예법이 구현된 ‘군’ 사이에 있는 이상, 이러한 ‘군’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의 ‘군’은 혼란에 빠져 동물의 ‘군’에 가까이 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물의 ‘군’과 인간의 ‘군’이 다를지라도 인간의 ‘군’이 혼란에 빠지고 ‘군’의 구성원인 인간이 인륜을 어기고 타락해 갈 때 인간의 ‘군’이 과연 동물의 ‘군’과 다르냐는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이 형성하는 ‘군’은 이상적인 ‘군’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안고 있다. 현실의 인간이 구성하는 ‘군’의 구성원인 인간은 가장 뛰어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배움을 통해 예의를 익힐 수 있

13) 「榮辱」我欲屬之鳥鼠禽獸耶? 則又不可, 其形體又人, 而好惡多同. 人之有鬪, 何哉? 我甚醜之.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은 이상적인 '군'과 비교할 때 예의(禮義)의 결핍 상태로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동물의 '군'과 비교할 때는 예의를 갖춘 '군'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서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간에게 '군'을 형성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이 때문에 인간의 선행과 악행, 질서와 혼란 등의 문제 거의 대부분은 '군'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이 형성하는 '군'에는 아마도 여러 종류의 '군'의 도리(道)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군'은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마도 그릇된 '군'의 도리는 인간의 '군'에 혼란을 가져오며 최악의 경우에는 인간의 '군'의 해체를 가져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혼란 상태에 빠진 인간의 '군'은 외견상 동물의 무질서한 '군'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군'은 동물의 '군'과는 중요한 차이 하나를 갖고 있다. 인간의 '군'에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어떤 종류의 관습과 규범이 도입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장 훌륭한 군도(群道)인 예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군'이 예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인간의 '군'은 예의를 가질 수 없는 금수의 '군'과는 어느 정도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순자는 동물과 인간의 '군' 모두에 유대감이 있다고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순자는 여러 곳에서 동물들 사이에도 가족애가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있고 때로는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들 사이에 보이는 자연발생적인 감정과 인간이 갖는 감정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일까?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 즉 어떠한 관습과 규범도 접하지 않은 본성이란 동물의 본성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그 다음 절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욕망과 감정

앞에서처럼, 순자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어떤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이를 행동으로 옮기거나 표출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의 욕망이나 감정은 그 자체로 선악 판단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1) 어떤 감각적인 욕망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직관적으로는 악한 것처럼 보인다. (2) 반대로 가족을 보았을 때 느끼는 애정은 아직 표출하지 않았더라도 직관적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인다. 순자는 양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까?

먼저 (1)의 경우를 보자. 이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행동할 경우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런 사람을 두고 순자가 군자라고 생각했을 리는 없다. 군자란 옳지 않은 것이라면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¹⁴⁾ 그렇다면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순자가 욕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보면 금방 얻을 수 있다.

순자는 많은 곳에서 인간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경우 세상에 혼란이 온다고 말했지만, 인간의 욕망 자체를 비난한 적이 없다. “욕망은 욕망의 대상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겨나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¹⁵⁾이라는 「정명」의 주장처럼 그에게 욕망이란 하늘(天)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욕망의 유무는 질서와 혼란의 문제(治亂)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生死)일 뿐이다.¹⁶⁾ 인간이 하늘로부터 생명을

14) 「勸學」 使目非是無欲見也, 使耳非是無欲聞也, 使口非是無欲言也, 使心非是無欲慮也.

15) 「正名」 欲不待可得, 所受乎天也. 해당 원문에 대해 김학주는 “사람의 욕망이 다 얻어질 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번역했다. 楊倞과 俞樾의 해석에 따라 원문의 ‘待’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원문을 고치지 않은 郭嵩燾의 설에 따라 번역했다. Knoblock과 張覺도 이와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張覺 22.11, Knoblock 22.5a) 이 부분에 대한 주석가들의 논란은 王先謙, p.428 참고.

16) 「正名」 有欲無欲, 異類也, 生死也, 非治亂也.

받은 이상 인간에게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욕망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 이상, 인간에게 욕망을 없애려는 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인 하늘(天)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인간의 욕망은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자연 환경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일 뿐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정명」편의 이어진 대목에서 순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의 욕망은 마음이 가하는 여러 제약을 받아 하늘로부터 받은 그 상태와 같아지기 어렵다”¹⁷⁾고 말하여 욕망은 마음의 활동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순자는 욕망 자체를 놓고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욕망에 대해 승인한 것(所可)이 이치에 맞는지(中理) 아닌지를 논할 뿐이다. 결국 그는 욕망 그 자체보다는 마음의 활동에 의해 변형된 욕망이 그가 생각하는 질서로 이어질지 아니면 혼란으로 이어질지 즉 조화로운 ‘군’의 유지에 보탬이 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순자는 이런 욕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 악하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거나 이미 악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2)의 경우를 검토해 보자. 먼저 가족에 대해 느끼는 애정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자는 혈기(血氣)를 갖고 있는 존재는 자신과 동류인 것에 대해 애정을 갖는다고 말하고¹⁸⁾ 어린 강아지조차 자신의 부모를 잊지 않는다¹⁹⁾고 말한다. 따라서 동물의 ‘군’에서도 그 구성원 사이에 친밀함과 애정, 즉 유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삼아 순자가 동물도 예의(禮義)를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순자는 어디에서도 동물이 도덕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읽어야 할 것이다 : 지각 능력(知)을 가진 존재가 표출하는 감정은 그 자체로는 선하다고 할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순자는 동물에게도 아버지와 아들(父子)은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친함(父子之親)이 없고, 암컷과 수컷은 있지만 남녀의 구별(男女之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여

17) 「正名」所受乎天之欲，制於所受乎心之多，固難類所受乎天也. 이곳의 번역 역시 郭嵩燾의 설을 따랐다. 王先謙, p.428

18) 「禮論」凡生乎天地之間者，有血氣之屬必有知，有知之屬莫不愛其類。… 然而縱之，則是曾鳥獸之不若也，彼安能相與群居而無亂乎!

19) 「榮辱」乳彘觸虎，乳狗不遠遊，不忘其親也.

기에 비추어 말하자면 지능(知)를 가진 존재가 서로에 대해 보이는 애정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친함(父子之親)이나 남녀의 구별(男女之別)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감정, 심지어 가족들 사이의 애정조차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은 경우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타인의 자식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부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타인이 누릴 수 있는 재화를 파괴하는 일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이런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순자는 인간의 감정의 표출 역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의 질서와 혼란(治亂)과 연결 지어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순자는 「예론」에서 삼년상(三年喪)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 “[삼년상이란] 사람의 감정에 어울리게 형식을 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을 수식하고…”²⁰⁾ 따라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자는 인간의 감정 역시 그 자체로는 선악을 따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감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례와 관련된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과 그 감정을 꾸미는 방식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자는 욕망이나 감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표출되는 단계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 욕망에 대해서는 마음이 승인한 바(所可), 그리고 감정을 꾸미는 방식 등이 문제가 된다. 이는 인간이 일으키는 문제는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군’의 일원으로서 일으키는 문제라는 관점과 일관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군’에 대한 논의에서 던진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다시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립된 인간을 가정해 보는 것부터 다시 살펴보자. 이상의 논의에서 보자면 고립된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군’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임을 고려하자면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다. 혹시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립된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은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욕망과 감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욕망과 감정을 표출했을 때 인간이 이루는 ‘군’에 질서의 상태를 가져 올 것이냐 혼란의 상태를 가져 올 것이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필자는 순자가 인간의 ‘군’과 동물의 ‘군’에 대해, 비록 명확하지는

20) 「禮論」稱情而立文，因以飾群…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바 있다. 순자는 욕망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순자에 따르면 동물 역시 친족 간의 애정을 갖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갖는 감정과 욕망은 동물이 갖는 감정과 욕망과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순자는 「예론」에서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 표현이 때로는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순자는 인간이 혈기를 가진 존재들 중 가장 뛰어난 지(知)를 가졌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친족 간의 애정 역시 가장 깊다고 말한다.²¹⁾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예의(禮義)를 통해 길러나갈 수 있으며 인간은 인의(仁義)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²²⁾ 동물도 이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바탕이 되는 감정 역시 인간만큼 깊지 않고, 인의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길러야(養) 할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 동물의 감정과 욕망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비록 예의가 아닐지라도 인간이 고안해 낸 관습이나 규범을 통해 변형이 가능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곶과 주의 도리를 가지고서 욕망과 감정을 제어한다면 이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일에 가깝겠지만, 아마도 동물은 그럴 가능성조차 없다. (이 주제는 다음 절에서 본성과 인위의 관계 문제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처럼 순자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군'의 형성과 유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순자가 '군'을 설명하는 방식과 감정과 욕망을 설명하는 방식은 상당히 유사하다.

- (1) '군'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인 것처럼, 욕망과 감정은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갖는 것으로 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없앨 수도 없는 것이다.
- (2) 인간의 '군'에 아무런 질서가 없을 때 동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21) 「禮論」有血氣之屬莫知於人，故人之於其親也，至死無窮。

22) 「性惡」然而塗之人也，皆有可以知仁義法正之質，皆有可以能仁義法正之具，然則其可以爲禹明矣。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동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3) 그러나 실제론 인간은 ‘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관습과 규범을 만들어냈듯이, 감정과 욕구를 표출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안해냈다. 인간의 ‘군’은 선왕의 도리를 통해 이상적인 ‘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감정 역시 도리에 맞게 충족되고 표출될 수 있다.
- (4) 이와 반대로, 동물은 조화롭고 하나된(和一) ‘군’을 이루어 만물의 영장이 되기 힘든 것처럼 동물은 동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감정 또는 욕망을 적절하게 기르기 힘들 것이다. 동물은 인간처럼 감정이 깊지 않고, 인의를 알고 실천할 정도의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 (5) (3), (4)로 인해 인간의 ‘군’은 동물의 ‘군’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동물의 감정과 욕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통점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원래 많은 점에서 부족한 존재이지만 인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동물의 감정과 욕망과 진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 감정과 욕망이 변형되는 것이라면, 이런 변화가 있기 전의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동물의 그것들과 진정으로 다르다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과 동물은 본성에서는 일치하지만 본성에 가하는 의식적인 노력 즉 인위(僞)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순자가 말하는 본성(性) 개념을 따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3 오직 인간의 본성(性)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순자의 본성 개념을 살펴본 것일 때 가장 먼저 주목해 볼만한 것은 순자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의 본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순자가 오직 인간의 본

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순자가 다른 존재의 본성을 언급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해당 사례로는 「성악」에서 곧은 나무와 굽은 나무의 본성²³⁾을 거론한 경우, 「애공」에서 공자의 입을 빌려 위대한 성인은 만물의 감정과 본성을 구분한다고 말한 경우에 그친다.²⁴⁾²⁵⁾ 이러한 사례를 제외한 『순자』에 나오는 본성 개념은 군이 사람의 본성 즉 “人之性”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문맥상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 뒤에서 보겠지만 순자가 내린 본성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본성과 인위 사이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순자로서는 물의 본성(水之性)과 같은 비생명체의 본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순자는 「정명」에서 본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면서 삶이 그렇게 된 이유(生之所以然)로 본성을 정의한 바 있다. 삶 또는 생명(生) 개념을 이용하여 본성을 정의한 이상, 순자는 본성을 논하면서 물과 돌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동물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원초적 모습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상태는 동물의 삶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의 본성, 특히 아직 인위와 결합하지 않은 본성이란 흔히 말하는 소의 본성이나 말의 본성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순자가 사용하는 본성 개념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성을 논할 때 순자는 동물의 본성을 논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다. 예컨대 「정명」에 나오는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정의는 모두 인간과 관련되어 있다.²⁶⁾ 본성과 인위의 관계를 논할 때 역시 동물이나 기타 존재의 본성을 배제하고 있다. 순자는 「예론」에서 본성을 바탕이 되는 재료에 인위를 바탕에 가해지는 형식과 무늬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성이란 뿌리이자 시작이고 타고난 자질이자 가공하지 않은 재료이다.
인위란 형식과 무늬가 융성한 것이다. 본성이 없다면 인위가 가해질 곳이

23) 「性惡」直木不待櫟栝而直者，其性直也。枸木必將待櫟栝烝矯然後直者，以其性不直也。

24) 「哀公」所謂大聖者，知通乎大道，應變而不窮，辨乎萬物之情性者也。

25) 이 밖에도 「正論」에 上失天性，下失地利，中失人和와 같은 문장이 보이지만, 문맥상 이곳의 天性은 天時로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 「正名」散名之在人者，生之所以然者謂之性，性之和所生，精合感應，不事而自然謂之性。

없고, 인위가 없다면 본성은 스스로 아름다울 수가 없다.²⁷⁾

본성과 인위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질료 또는 재료인 본성은 형식과 무늬를 갖고 있지 않고, 형식과 무늬인 인위는 그것이 실현될 공간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순자는 본성을 이중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성에는 예의 법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평가할 때 본성은 부정의 대상이 된다. 이와 동시에 본성은 예의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직 인위와 결합하지 않은 본성은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인위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자가 본성을 이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순자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주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짐작케 해 준다. 순자는 본성이 도의와 법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본성을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거나 인간은 구제불능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도의와 법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⁸⁾ 이에 비추어 보자면, 그들 자신의 도의와 법도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존재들은 당연히 그들의 인위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인위가 자리 잡게 될 공간으로서의 본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순자에게 도(道)란 “하늘의 도도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니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이고, 군자가 따르는 길”²⁹⁾(「유효」)이었다. 아마도 인간의 본성과 결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순자는 동물의 본성은 거론하지도 않았지만,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과 같은 의미, 즉 인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과 결합할 수 있거나 그래야 할 것으로서의 본성을 논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이 태어나 ‘군’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생명의 근거로서 본성을 갖는다. 그리고 생명으로서의 본성이 외물에 감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물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본성만으로 즉

27) 「禮論」 性者, 本始材朴也. 僞者, 文理隆盛也. 無性則僞之無所加, 無僞則性不能自美.

28) 즐고 (2010), pp.73-76

29) 「儒效」 道者, 非天之道, 非地之道, 人之所以道也, 君子之所道也.

어떠한 인위 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어떤 '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상, 해당 '군'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규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탄생의 순간 이후부터 자신이 속한 '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다른 인간으로 자라나게 된다.

간(干)·월(越)·이(夷)·맥(貉)의 자식들은 태어날 때엔 똑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서 풍속을 달리하는 것은 가르침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³⁰⁾(「권학」)

비유하자면, 월(越)나라 사람은 월나라에 편히 살고, 초(楚)나라 사람은 초나라에 편히 살고, 군자는 중원에 편히 사는 것과 같으니, 이는 지능(知能)과 재성(材性)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조치와 습속에 의해 적합하게도 되고 다르게도 되는 것이다.³¹⁾(「영육」)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 후천적으로 익히게 되는 습속(習俗)이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인간의 본성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익히게 되는 습속이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월나라와 초나라의 습속도 있고 군자가 익히는 중원의 습속도 있다. 「천론」의 술어를 빌어 말하자면, 천재지변은 하늘(天)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그것이 질서(治)를 가져오든 혼란(亂)을 가져오든 모두 인간(人)에 속하듯이 인간의 본성은 하늘에 속하고 습속 대부분은 인간에 속한다.

인간이 익히게 되는 습속들 대부분은 순자가 「예론」과 「성악」에서 제시한 인위(僞)의 일부이다. 「예론」과 「성악」에서 순자가 강조했던 것은 맹자의 주장처럼 인간의 선함이란 본성에서 비롯하지 않으며 인간이 선함이란 인위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위에서 나온 모두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순자가 보기에 목가는 그릇된 주장을 펼쳐 천하

30) 「勸學」 干·越·夷·貉之子，生而同聲，長而異俗，教使之然也。

31) 「榮辱」 譬之越人安越，楚人安楚，君子安雅。是非知能材性然也，是注錯習俗之節異也。
번역은 김학주 p.104, 王先謙 p.62 참고.

사람들을 빈곤과 고통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삼년상에 반대하여 인간을 금수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기까지 한다. 이러한 묵가의 이념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역시 인위의 산물인 가르침(敎)이나 습속의 일종이다. 사실 순자가 비난하는 사상가들의 주장 모두 인간의 노력의 산물로 인위에 속한다. 이를 감안해 말하자면, 본성이라는 옷감 위에는 인위라는 무늬가 수놓아져야 하지만, 그 무늬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인간의 선함이란 본성이 아닌 인위에서 비롯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위가 사람을 이상적인 상태로 인도하지는 않는다.

사실 순자에게 본성과 결합해야 할 인위, 인간이 따라야 할 도(道)는 성인이 제정한 예(禮)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性)은 다양한 인위(僞)와 결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왜 오직 예(禮)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일까? 인간의 본성을 가공하지 않은 원목(樸)이나 물들이지 않은 흰 천(素)에 비견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를 부가하든 어떤 염료로 물들여도 괜찮지 않을까? 더 나아가 법가가 시대에 따라 행하는 도리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는 특정 형태를 부가하고 특정 염료로 물들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다른 형태와 다른 염료를 가해도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순자가 생각하는 진리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자는 「비상(非相)」에서 이런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옛날과 지금은 실정이 다르므로 혼란을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 도를 달리 한다.” 일반인들은 이런 말에 미혹되곤 한다. 일반인들이란 어리석어 논변하지 못하고 식견이 얕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본 것조차 속일 수 있으니 천년 후에 전해진 것들은 말해 무엇 하랴!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은 대문과 뜰 사이에서도 사람을 속이니, 천 년 전 일은 말해 무엇하랴! [반면] 성인은 어찌서 속일 수 없는가? 나는 말한다. 성인은 자신을 기준으로 헤아리는 자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인간으로 [옛날] 인간을 헤아리고, [오늘날] 실정으로 [옛날] 실정을 헤아린다. [오늘날] 같은 종류인 것으로 [옛날의] 같은 종류를 헤아려 보고 [오늘날] 학설으로 [옛날 사람들의] 공을 헤아리고 도를 가지고서 전체를 헤아리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다. 같은 종류여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비록 오래되었더라도 이치는 동

일하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왜곡된 견해를 보아도 속지 않으며 복잡한 사물을 관찰해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도리에 따라 헤아리기 때문이다.³²⁾³³⁾

순자가 보기에 세상의 실정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³⁴⁾ 세상에서 생기는 문제 역시 동일하고 이에 대응하는 도(道) 역시 고금을 관통한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도가 달라진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순자에게 도(道)의 핵심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다.³⁵⁾ 본성과 인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자에게 옛 사람과 지금 사람, 성인과 폭군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 동일한 이상 본성에 짝할 것, 그리고 따라야 할 도(道) 역시 동일하다. 순자는 도(道)로서의 예야말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따른다면, 결국 인간의 본성에 가

32) 이 부분은 제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읽었다. 수정한 부분 옆에는 참고한 주석가를 밝혀 놓았다. []은 원문을 추가한 부분이고 ()는 글자를 삭제하여 읽은 부분이다. 『荀子』「非相」 夫妄人曰，古今異情，其[所：王念孫]以治亂者異道，而衆人惑焉。彼衆人者，愚而無說，陋而無度者也。其所見焉，猶可欺也，而況於千世之傳也！妄人者，門庭之間，猶可誣欺也，而況於千世之上乎！聖人何以不可欺？曰，聖人者，以己度者也。故以人度人，以[今之：張覺]情度[古之：張覺]情，以類度類，以說度功，以道觀盡，古今一(度：楊倞)也。類不悖，雖久同理，故鄉乎邪曲而不迷，觀乎雜物而不惑，以此度之。 번역문은 해당 원문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古今의 비교에 착안한 張覺의 번역(5.11, 5.12)을 참고했다.

33) 심사위원 중 한 분은 해당 원문의 순자의 類 개념이 인식을 聖人の '類적 인식 능력'이나 사태 처리 능력(=禮의 인식·구성·실현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조언에 동의하는 바이며, 순자 뿐 아니라 맹자 역시 이와 유사하게 확충론에서 '類'를 능력이나 방법론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훗날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34) 정확히 말해 순자는 과거가 현재와 같다는 의미에서 옛과 지금이 같다고 주장한다. 다음 부분을 참고하라. 「非相」 故曰，文久而息，族久而絕，守法數之有司極而褻。故曰，欲觀聖王之跡，則於其餐然者矣，後王是也。彼後王者，天下之君也，舍後王而道上古，譬之是猶舍己之君而事人之君也。故曰，欲觀千歲，則數今日，欲之億萬，則審一二，欲知上世，則審周道，欲之周道，則審其所貴君子。故曰，以近知遠，以一知萬，以微之明。此之謂也。

35) 「解蔽」 夫道者體常而盡變，一隅不足以舉之。

장 적합한 인위는 예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본성에 예가 없을 지라도 본성에 가장 어울리는 짝패는 예라는 것이다. 예가 본성에 가장 어울리는 짝패라고 주장은 순자가 본성이 악하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무릇 사람이 선해지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 진실로 자기에게 없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구하려 한다. … 진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이 선해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간의 본성은 원래 예의가 없기 때문에 힘써 배워 이를 갖기를 추구하는 것이다.³⁶⁾ (『성악』)

순자는 인간이 선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배움(學)을 하게 되는 동기 내지는 출발점을 갖고 있지 못한 것(無)을 갖고 있어하는(有) 갈망으로 설명한다. 위 인용문에서 순자는 ‘갖고 있지 않은 것(無)’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다름 아닌 예의(禮義)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인위(僞)에서 생겨난 어떤 습속(習俗)을 익히게 되지만,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때 찾을 가치가 있고 또 그해야만 하는 대상은 오직 예의뿐이다.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짝이 예이라는 점에서 순자에게 인간의 본성과 예의는 본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순자는 「영욕」에서 선왕의 도인 예의를 배우는 일을 음식을 맛보는 일에 비유한 바 있다.³⁷⁾ 인간이 태어나 조잡한 음식만을 먹던 사람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맛난 음식을 먹으면 이전 음식은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걸주나 도척의 도리를 배운 사람던 사람이 성인의 도리를 배우면 이전의 도리 따위

36) 「性惡」 凡人之欲爲善者，爲性惡也。… 苟無之中者，必求於外。… 苟有之中者，必不及於外。用此觀之，人之欲爲善者，爲性惡也。今人之性，固無禮義，故彊學而求有之也。

37) 「榮辱」 今使人生而未嘗睹芻豢稻粱也，惟菽藿糟糠之爲睹，則以至足爲在此也。俄而粲然有秉芻豢稻粱而至者，則矐然視之曰：此何怪也？彼臭之而嫌於鼻，嘗之而甘於口，食之而安於體，則莫不棄此而取彼矣。今以夫先王之道，仁義之統，以相羣居，以相持養，以相藩飾，以相安固邪。以夫桀跖之道，是其爲相縣也，幾直夫芻豢稻粱之縣糟糠爾哉！

는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조금 변형해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태어나 무언가를 배워서 갖게 되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인간에게 최선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적합한 것은 오직 예의 뿐이다. 결국 배움을 통해 예의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며 이전에 익힌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자면, 순자에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개념은, 비록 인간의 노력(僞)로부터 생겨나는 다양한 결과물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자 인간이 조화롭고 하나된(和一) 집단(群)을 형성하기 위한 유일한 질서인 예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본성과 예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가 있고, 인간의 본성이 동물의 본성과 맥락상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순자가 성선설에 가까운 견해를 가졌다고 볼 필요는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순자는 본성과 인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했고, 그의 구분에 따를 때 본성은 인위를 통해 얻은 것을 미리 갖고 있지 않으므로 맹자의 성선설과는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순자에게 본성은 인위, 특히 예와 무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본성을 논할 때 순자는 무생물의 본성이나 동물의 본성을 거의 거론하지 않았고 오직 인간의 본성만을 거론했으며, 본성을 논할 때 그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인간이 형성해야 하는 ‘군’의 질서였다.

3. 결론: ‘군’, 감정과 욕망,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앞에서 다룬 세 주제, ‘군’, 감정과 욕망, 본성 모두에 대해 순자는 다음 몇 가지 맥락에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먼저 순자는 동물 역시 이 셋을 갖고 있다거나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의 ‘군’, 감정과 욕망은 원래 다른 존재들과 차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본성의 경우에는 무생물이나 동물의 본성은 거의 거론하지 않는다. 순자가 이처럼 차이를 두고 설명하는 이유는 이 셋의 의미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셋 모두에 대해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군’은 ‘군’에 적합한 도(道)를, 감정과 욕망은 기르는(養) 방식을, 본성은 인위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은 본래 동물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난 지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관습과 규범을 만들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 비추어보자면, 인간의 ‘군’, 감정과 욕망, 그리고 본성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는 동물과는 애초에 출발부터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의 ‘군’, 인간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대부분 특정한 ‘군’의 도, 기르는 방식, 인위와 결합해 있다. 다만 문제는 ‘군’의 도, 기르는 방식, 그리고 인위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폐(解蔽)」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좋지 않은 법(法)이라도 있는 것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³⁸⁾고 말하는 신도(慎到)처럼, 순자가 이런 것들이라도 있는 편이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신도와는 반대로 순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불완전할 뿐 아니라 때로는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다. 순자가 이 셋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할 때 순자가 말하고자 했던 또 하나는 진정한 보충물인 예(禮)이다. 순자는 예를 인간이 따라야 할 당위나 성취해야 할 목표로 볼 뿐 아니라, 원래 정해져 있는 짝처럼 여긴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줄 인간이 형성하는 ‘군’의 도로,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감정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인간을 선으로 인도할 가장 훌륭하면서도 유일한 길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자면, ‘군’과 관련해 순자의 사상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계이다. 인간에게 ‘군’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게끔 해주는 것이기에 앞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이 점이 이어지는 논의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순자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군’의 형성과 유지라는 점에서 평가한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 자체가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지만 인간의 욕망과 감정이 ‘군’ 안에서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주된 내용으로 갖고 있는 본성에 대해 악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둘째는 ‘군’

38) 『慎子』「威德」法雖不善猶愈於無法，所以一人心也。

안에 구현되는 질서에 대해 논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순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관습과 사상들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진행하고 예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본성에 대한 논의는 처음에는 인간이 갖는 결함을 지적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의 질서를 구현할 장소로 존재한다. 즉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군'이 순자가 생각하는 예를 원래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군'이 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가능성을 갖는만큼, 인간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본성 역시 이러한 적극적인 가능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羅竹風 主編, 『漢語大辭典』, 上海 : 漢語大辭典出版社, 1993.
- 王先謙, 『荀子集解』, 北京 : 中華書局, 1988.
- 張 覺, 『荀子譯註』,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5.
- 高流水·林恆森, 『慎子·尹文子·公孫龍子全譯』, 貴州 : 貴州人民出版社, 1990.
- Hutton., Eric, *Xunzi : The Complete Text*,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Knoblock., John, *The Complete Works of Xunzi*,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 김학주, 『순자』, 서울 : 을유문화사, 2001.
- 김형진, 「사회적 인간관에 기초한 순자 철학의 재조명」, 『제자백가의 다양한 철학흐름』, 서울 : 사회평론, 2009.
- 줄고,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 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줄고, 「『상서』에 제시된 훌륭한 왕이 되는 길에 대한 두 가지 변안 : 맹자와 순자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88집, 2010.

<Abstract>

Through Xunzi's thought on *qun* 群 looking into desires
and nature

-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humans and animals -

Chang, Wontae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Xunzi's thought on *qun* 群 consists of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necessity of a society. For the human kind, the ability to form a society not only enables him to rule as 'lord of all creation' but also forms a basic condition for survival. In this context, Xunzi evaluates human desires and emotions by the standard of form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society. When he states that human nature is 'evil' it does not mean human desires and emotions are in themselves so, but that human nature which consists mainly of desires and emotions cause problems within the society. In the second stage the discussion focuses on order realized within the society. Xunzi goes beyond comparison between mankind and beasts, extends the evaluation to man-made customs and philosophies, finally offering ritual (*li* 禮) as the ultimate alternative. Censuring human deficiency seems initially to be Xunzi's main purpose in his discussion of human desires, emotions and nature, but in this second stage he reveals that human nature is what allows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society, as it functions as the backdrop of human transformation. This does not signify Xunzi believed the society is equipped with ritual to begin with. Nevertheless, the potential lies in that the human society is capable of embracing and realizing ritual as the ideal system, just as human desires, emotions and nature is potentially capable of transformation.

Key words: Xunzi, human nature, *qun*, society, desire